

KEB 하나은행, '위폐감정분야에서 독보적 역량 재확인!'

- 2016년 위폐 630매, 13만 4천불(미화환산기준) 적발
- 은행권 전체 적발량의 86% 차지, 일선 경찰서 및 국과수에서도 진위 감정 요청
- 2012년부터 '위조지폐 감정 고급과정'을 통해 약 80명의 위폐감정 전문가 보유
- 북한산 추정 슈퍼노트 대량 유통 우려에도 최적의 대응력 구비



KEB 하나은행은 지난해 은행의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적발한 위폐가 630매(미화 395매, 위안화 217매, 유로화 7매 등), 미화환산 기준 13만 4천불에 달하는 등 다시 한번 국내은행 중 최고의 위폐감정 능력을 보였습니다. 적발한 위폐 13만 4천불(미화환산 기준)은 국내 전체 은행의 위폐 적발 금액 15만 6천 646달러의 86%에 이르며, 2위 은행(9.2%, 1만 4천불)과는 무려 9배가 넘는 수치입니다.

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▲ 금융권 유일의 위변조대응센터 설치 ▲ KEB 하나은행만의 '위폐 감정 전문가' 양성 프로그램 운영 ▲ 전국 영업점을 찾아가는 맞춤형 실무교육 실시 등 압도적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 자긍심과 기초 실력을 착실히 다져온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.

KEB 하나은행은 2012년 9월 국내은행 최초로 고해상도 스캔 이미지를 이용한 실시간 '위조지폐 감정 시스템'을 구축하였으며, 2013년 위폐 대응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를 센터 센터장으로 영입한 바 있습니다. 또한 지난 2014년 11월 국내 금융권 유일의 위조지폐 전담 독립부서를 신설하였고, 통합은행 출범 이후 국가기관급 CSI 장비를 도입하여 실시간 위조지폐 진위를 판독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.

이외에도 2012년부터 매년 '위조지폐감정 고급과정'을 통해 현재까지 62명의 위폐식별 전문가를 배출하는 등 은행의 탁월한 위폐감식시스템과 전문가들의 역량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, 단둥 등지에서 유통되던 북한산 추정 위폐 국내 반입사건 관련 서울지법에 증인으로 참여하는 등 위폐식별 관련 그 탁월한 능력을 공인 받았습니다.